

序

國史와 族譜는 範圍의 大小는 다르나 그 意義는 同一하다 正確한 國史는 그 民族의 바른 國家觀을 鼎立시키며 正確한 族譜는 그 子孫의 바른 氏族觀을 確立시키게 된다 國家는 여러 氏族의 集結體로서 個個 氏族의 바른 氏族觀이 나아가서 바른 國家觀이 될 것이다 이렇게 歷史와 傳統을 바르게 認識하여 守護宣揚하고 永久發展시키는 契機가 즉 國史와 族譜의 正確한 編纂과 普及이라 하겠다 우리 全州 李氏는 近世 朝鮮의 王族으로써 國家와 休戚을 같이 하면서 系譜와 文獻이 具備함을 自負하는 바이다 吾門은 先祖 監役公 諱 台賓 께서 落南以後로 論亭古基를 固守하여 于今 四百餘年이 되었다 그러나 世代가 綿遠하고 子孫이 繁衍하여 散居四處하니 實로 通姓合譜가 容易하지 못한지라 이에 監役公以下 所蒙子孫으로 限하여 派譜를 하게

되었다 들이켜 보건데 近來에 西歐文明의 亂入으로 우리 文明의 源
泉인 忠孝思想이 解馳되어 國家觀은 勿論 氏族觀 卽 追先敦宗之心
마저 날로 稀薄하여 가는 此際에 今般修譜를 契機로 우리 宗中은 大
悟覺省하여 孝悌忠信의 先訓을 實行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이다
今般修譜에 血誠을 아끼지 않으신 宗親諸位께 甚深한 謝意를 表하
며 不肖淺學菲才로서 猥濫되게 所感數言을 부치오니 海諒하시기 바
랍니다

西紀一九八二年壬戌九月

日

監役公十五代孫

澤揆

謹識

全州李氏璿源先系

始祖

李翰

新羅司空
號甄城

高宗光武三年己

亥四月八日乙

酉設壇于墓所

之前進號肇慶

(表石親書陰

記親製) 同年

五月二十五日

辛未加土于墓

所全州乾止山

乙坐

妣慶州金氏

新羅太宗十世

英祖四十七年辛

公之禮十月十

神板于慶熙宮

面仍行親祭建

之北號肇慶同

上率王世孫祗

安慶基殿之移

六日壬戌奉安

二世

子自延

侍中

妣尹氏

晉陽君自仁女

三世

子天祥

僕射

妣迎日鄭氏

侍郎襲明女

四世

子光禧

阿干

妣黃氏

大將軍志善女

五世

子立全

司從

妣白氏

翰林光善女

六世

子兢林

見下

孫軍尹殷義女
卯倣周公上祀先
六日癸未造兩位
之資政殿親題粉
廟于全州慶基殿
月二十二日己丑
送神輿于江外權
安廳十一月二十
新廟

全州李氏璿源先系